

게하시가 문동병이 발하여 (왕하 05:17-27)

성경에는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신앙의 인물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본 받지 않아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사람과 그러하지 않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인 나아만 장군은 크고 존귀하며 큰 용사였지만 그는 문동병 환자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그가 문동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아람 왕은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쓴 편지와 금 35kg, 은68kg과 의복 열벌을 보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들은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자신에게로 보내라고 말하였습니다. 밖으로 나와 보지도 않는 엘리사를 통하여 10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번 씻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몹시도 마음이 상하였지만 나아만은 그의 참모들의 권유에 따라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구었습니다. 문동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문동병이 치료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아람 왕이 보낸 선물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답하였습니까? 16절, '나의 섬기는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는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절,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와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좇아 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문동병이 걸리는 심판을 받았습니까? 왜 입니까? 게하시의 물욕 때문만은 아닙니다. 게하시는 이 나아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없었습니다. 또한 나아만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어 지도록 나아만의 영적 성숙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하시의 관심은 나아만이 가지고 온 물건들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으로 부터 은 두 달란트와 옷 두벌을 받아 두 종들에게 지우고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종이 아니라 노새 두 마리에 이스라엘 흙을 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나아만과 대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 신앙의 걸음마를 배우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